

# 만해사상 세계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자

## 만해학회 세미나서

### 아시아 개혁사상가와 비교분석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적 평화실천을 기리고 개혁정신을 조명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다.

만해학회(학회장 한계천)가 7월 27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서울사무소에서 '아시아와 만해'를 주제로 연 만해추진 기념 세미나에서는 각국 평화개혁가들과 만해 스님의 사상에 대한 비교고찰과 함께 후대의 선양 활동을 본격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만해 추진세미나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불교운동가, 개혁 사상가와의 비교 고찰이 진행됐다.

### 만해, 세계 사상 속 조명 향후 과제

이날 총론 발제를 맡은 김광식 교수는 "만해 개혁론은 불교개혁과 참여운동, 실천운동, 불교 근대화 등이었다. 그리고 만해 스님의 이런 운동 및 지향에는 근대주의·서구철학과 사상 등이 수용됐다"고 말했다. 만해사상을 세계적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만해 한용운은 근대 문명의 변화상을 직시하고 근대적인 승려로 변모한 것으로 보이며 불교근대화를 위해 불교 유산 및 개혁에 눈을 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개혁사상은 한 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는 만큼 만해 사상

이 동아시아 사상에 받은 영향과 다시 영향을 준 과정을 면밀히 고찰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 중국 양계초, 태허와 만해의 계몽 의지

김성욱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민족 또는 님을 통한 공동체의 구상' 발표를 통해 "양계초와 만해는 서구이론의 계몽사상을 사회에 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양계초는 일본유신 성공을 보고 서구이론을 적극 받아들여 강력한 민족국가 건설 코사 했다"며 "양계초가 계몽적 지식인을 앞세운 정치공동체를 구상했다면 만해는 심정적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자 한데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중화민국 건국 당시 불교개혁을 추구한 사상이 태허(1889~1947) 스님과 만해 스님을 비교했다. 고 교수는 "태허는 다양한 교육기관 개설과 인재양성의 면에서 만해는 심우장을 통해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두 나라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고 평했다.

### 세노오 기로와 사회주의 실천서 차이

일본 세노오 기로(1889~1961)는 불교청년운동을 통해 군국주의와 파시즘 국가 일본을 아래로부터 변혁시키자 했던 불교 운동가다.

원영상 원광대 불교학과 교수는 '한용운과 세노오 기로의 불교혁신사상 비교연구'

를 통해 "한용운과 세노오는 당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표용하며 반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불교를 내걸었다"며 "불법을 현실로 이끌기 위해 불교교단을 개혁하고자 한 점, 그 운동의 주체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점, 불교사회주의의 이상을 지닌 점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한용운은 민족자주 힘을 키운 독립이 목표였기 때문에 불교사회주의에 대한 동조는 있어도 구체적인 논리 전개나 참여는 미흡하다. 반면 세노오는 불교사회주의를 구체화해 공산주의와 불교양자 모두 민족의 삶의 공통해소가 국가사회의 흥망에 달려있다고 보고 천황제 및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한다"고 설명했다.

### 불교부흥과 불교개혁

스리랑카 다르마팔라(1864~1933)는 스리랑카에서 '제2의 아소카'로 불리는 불교운동가로 서구 식민시대에서 불교를 통한 독립과 사회개혁 운동을 펼친 이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다르마팔라와 만해" 발제를 통해 "다르마팔라는 '불교부흥', 만해는 '불교개혁'이란 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며 "다르마팔라의 부흥운동은 복고적이며 붓다성지 및 불교문화 회복 등에 집중돼있다. 반면 만해의 불교운동은 불교대화화와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분석하면서 만해 개혁정신을 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학술 · 문화재소식

### 석가탑 9월 중 전면 해체 된다

기단석 균열로 수리, 30억 예산 2014년까지 진행

지난 1966년 도굴미수사건으로 훼손된 이후 풍파에 지속적으로 훼손돼 온 불국사 석가탑이 9월 경 전면 해체 수리에 들어간다. 석가탑 수리는 부분 해체 수리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7월 20일 '9월 중순 시작해 내년 초까지 석가탑을 전면 해체하고, 복원 설계를 한 후 다시 쌓아올려 2014년 말까지 복원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약 30억 원.

국보 21호인 석가탑은 2010년 말 기단석에서 길이 1.32m, 폭 최대 5mm의 균열이 확인됐다. 2011년 5월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에서 전면 해체 후 보수로 결정됐다. 노덕현 기자



훼손이 심각한 석가탑 기단부

해체 및 수리, 복원 등 전 과정은 불국사에서 진행되며 일반에 공개된다.

노덕현 기자

### 불광연구원, '전법학 연구' 제2호 출간

#### '북한산 중흥사' 특집 등 논문 12편 수록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이 최근 펴낸 '전법학 연구' 제2호에 △전도선언에 담긴 전법의 정신과 방법(김응철) △전법의 이념과 역사적 전개(백도수) △불전기술에 나타난 부처님의 전법행(유근자) 등 3편의 논문이 실렸다.

'북한산 중흥사'를 다룬 특집논문으로 △북한산의 사찰과 불교의 전개(황인규) △조선 후기 국토방위전략과 북한산성(박재광) △조선 후기 승군의 북한산성 축성

과 중흥사의 산성 관리(조명제) △한국불교사에서 중흥사의 위상과 역할(김상영) △승려사찰 중흥사의 가람배치와 복원방향(이경미) 등 논문 5편이 게재됐다.

광덕 스님의 사상과 관련된 연구로는 △금강 광덕의 바라밀 사상과 그 실천(김호규) △무한 생명 사상(목경찬) △광덕 스님의 선사사(황금연) △반야비라미 열송과 법신염불(김영진) 4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 한미 양국불교 상생구현 모색

## 회당학회, 7월 20일 미 서부대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과 미국의 불교와 학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미국에서 개최됐다.

진각종 회당학회(학회장 지정 정사)와 미국 서부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Coast 상우)는 7월 20일 서부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양국 불교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21C 미국과 한국의 불교'란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는 한국 측에서 진각종 종인 성초 정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혜정 정사, 교육원장 경정 정사, 종의회 의장 혜명 정사, 회당학원 이사장 효운 정사, 前 통리원장 회정 정사, 총금강회장 일석 각자 등 회당학회 관계자들과 상우 서부대 총장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회당학회 명예회회장 효운 정사는 "종교적 적대감이나 경제적, 환경적 대립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밝은 미래는 없다"며 "미국불교가 한국 전통불교와 만나 교류하고

서로 장점을 결합한다면 이상적 불국토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우 서부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 불교간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당학회 지정 정사는 기조논문을 통해 "세계화 속에 동서양의 문화와 문명의 교류는 필연적인 것이며 특히 동양의 불교와 서양 기독교사상의 접점은 인류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 생활모델"이라고 밝혔다.

지정 정사는 또 "종교는 본연에 자율이 있다. 불교의 자율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함께 자율을 세워 세계의 평화와 평등문화가 일어나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롱 서부대 교수는 '불교, 그리스도교와 현대

도교와 현대 세속세계와의 대면'이란 논문을 통해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앞으로 다가올 세기에도 어떤 형식이든 살아남을 것이지만 견해와 가치, 실천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롱 교수는 또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의 계속적인 증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간 협력과 화합 상생을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측에서 회당학회 지정 정사가 '21C 미국과 한국의 불교'에 대한 기조논문을 발표하고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가 '한국불교의 미국사회 포교', 허일범 진각대학원 교수가 '21세기 미국과 한국불교의 가치(생사관의 문제)', 진각대학원 교수 보성(황수심인당 주교) 정사가 '21세기 미국사회에서의 진각종 실천 불교의 방향'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됐다.

미국측에서는 브루스 롱(Bruce Long) 서부대 교수가 '불교, 그리스도교와 현대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가 축사하고 있다.

세속세계와의 대면', 바하네트 와폴라(Ven. Bhante Walpola) 상가나야케 승원장 스님이 '21세기 미국사회와 불교의 역할', 모니카 샌포드(Monica Sanford) 서부대 불교군법사 박사과정 연구원이 '미국사회에서의 불교 범사를 위한 준비와 자아사상'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국제학술대회가 열린 미국 서부대학교는 1991년 대만 불광산사에서 설립해 2006년 2월 정식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 불교학을 비롯해 경영학, 심리학, 언어학 등 학부와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금강대, 개교 10주년 맞아 우리 불교문화 공모전

금강대(총장 정병조)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우리 불교문화의 인식 제고를 통한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이미지 개선 및 확산을 위해 불교문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하고 설립 재단인 대한불교 천태종이 주최하고 금강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불교전통 문화콘텐츠 공모전과 △불교문화유적답사기 공모전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 공모전은 불교문화와 IT미디어의 결합 및 활용을 통한 한국불교전통문화콘텐츠(플래시)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자격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중·고교 학생 및 교사로 지정과정(①삼회양 놀이 ②연등축제 ③불교전래) 3팀과 일반과제(불교문화 관련 자유주제) 10팀

등 총 13팀을 1차 선발하여 제작비를 지원(지정과제 팀별 300만 원, 자유주제 팀별 100만 원)하고, 1등 대상팀에 상금 500만원을 비롯해 6팀에 총 상금 1,400만원을 시상한다.

불교문화유적답사기 공모전은 불교문화유산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자격은 대전·충청권 중·고교 및 대학생으로 50개 팀을 1차 선발하여 제작비를 지원(팀 50만원, 개인 10만원)을 지원한다. 시상은 대상 1등 대상(팀)에 300만원을 비롯해 총 16개팀에 총 상금 1,150만원을 지급한다.

공모전 응시는 8월 20일까지이며 제작 계획 및 제안서를 금강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교류팀으로 보내면 된다. (041)731-3012 노덕현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8월 16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8월 17일(금요일) 개강. 매주(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사)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세존의 진리를 수지하고 相扶(상부), 相助(상조), 相生(상생)의 정신으로 불법을 탁마하여 自我成就(자아성취)를 추구하고자 발심하신 선지선각자님 환영합니다.

## 일월조계종 입종서류

- 주민등록증사본, 증명사진 3매
- 승려증 발급하실 분 타 종단 수계증 사본
- 사암 등록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 입종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입종비 : 총무원 방문하시면 입종비 없습니다.
- 출가하실 분, 장기간 기도하실 분 환영

대한불교 일월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곡리 산 146. 사자암 011-677-8525